

《또도령 업고 세 고개》

# 새로 쓴 옛이야기

옛이야기는 오래된 이야기를 뜻한다. 그러나 이 ‘오래된’이란 형용사는 단순히 시간적으로 먼 과거를 뜻하지만은 않는다. 모든 오래된 것들이 으레 그러하듯, 옛이야기 역시 과거의 것이면서도 지금까지 이어져 온, 아직껏 살아남은 이야기라는 의미 또한 담고 있다. 오랜 시간의 무게를 이겨낸 이야기인 것이다.

글\_김상욱

**모**든 것을 지워버리는 시간의 풍화조차 이겨낸 옛이야기라면, 그 속에는 의당 특별한 그 무엇이 있지 않을까. 그럼 옛이야기의 특별한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옛이야기 속의 소박한 진실이리라.

시대와 장소를 아랑곳하지 않고 통하는 진실. 선한 그러나 고립되고 결핍된 주인공이 어려움에 처하고, 그런데도 자신의 본성을 잃지 않고 끈뚱하게 또 기품 있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삶의 진실이 아니고 무엇이라. 언제 들어도 달콤한 자장가처럼, 언제 보아도 싱그러운 초여름의 숲처럼 그 소박한 진실이야말로 우리를 다시금 살게, 살아내게 만드는 힘이 아닐까.

그러나 우리는 있는 옛이야기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옛이야기는 오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치 나무의 옹이처럼 단단하게 영글고 또 움팡지게 굳던터기를 덜어내고, 이제는 고갱이만 남아 쉽사리 사람들에게 곁을 두지 않는다. 풍부한 경험은 단 하나의 화소로 응결되고, 섬세한 묘사는 너무나 간결한 문장으로 바짝 메말라 있으며, 인물의 선택은 상황을 저만치 밀치고 의미를 뛰어넘은 상징으로 추상화된 채 드러난다. 따라서 옛이야기는 단순성에도 불구하고, 읽는 이에게 삶의 깨달음을 손쉽게 건네주기를 거부한다.

이에 옛이야기는 옛이야기대로 누리는 한편, 옛이야기의 형식을 빈 지금, 여기에서 창작된 이야기 또한 필요한 것이리라. 기존의 옛이야기는 지금 여기에서의 필요에 맞게 함부로 고치기에는 근접할 수 없는 위엄과 납득할 수 없는 신비로움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옛이야

기의 소박한 진실을 고스란히 건사한 채, 옛이야기의 본질인 내용의 선명함과 표현의 풍부함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새롭게 창작되는 옛이야기가 필요한 까닭이다.

## 창작 옛이야기의 새로운 가능성

그렇지만 창작 옛이야기는 그 자체가 형용모순인 듯 보인다. 옛이야기는 이미 구전되는 가운데 집단적으로 창작되면서 시간의 무게를 견뎌낸 문학작품이며, 창작이란 작가의 창조적인 열정과 노력의 소산물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개인적인 창조성을 덜어낸 옛이야기와 독자적인 개성을 생명력으로 삼고 있는 창작은 함께 기거하기 힘든 속성을 지닌다. 따라서 자칫 창작 옛이야기는 작가의 창조성을 훼손하거나 옛이야기만의 견고한 상정을 무너뜨릴 여지가 적지 않다. 이 날카로운 벼랑을 건너뛰기가 창작 옛이야기로서는 여간만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용케 이 두 질곡을 넘어, 창조성과 옛이야기의 견고함을 동시에 획득한 작품이 있다. 임어진의 《또도령 업고 세 고개》가 그 작품이다. 아직 마음껏 흐드러지게 개화한 작가는 아니지만, 오랜 숙려의 기간을 거치고 있는 임어진은 우리의 창작 옛이야기가 도달한 한 지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부자집 머슴을 시는 ‘땅쇠’는 ‘이름처럼 다부지고 수긋하니 일을 잘’ 하는 이다. 이 머슴에게 주인영감은 ‘췌에 얻은 보물단지 아들’을 서당까지 오가며 업어주라는 허명한다. 머슴 땅쇠는 못마땅하지만 할 수 없이 명을 받들고, 귀한 아들 또도령을 업어 서당을 오간다. 그러던 차에



《토도령 엮고 세 고개》  
 입어진 지음 | 이광익 그림 | 다림  
 100쪽 | 값 7,500원

땅쇠는 껍을 내어 토도령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야기 값으로 혼자 걸을 것을 요구한다. 심지어 이야기에 흠뻑 빠져든 토도령의 요구로 아버지인 부자집 영감은 땅쇠를 엮어주기까지 한다. 주인과 노예가 이야기를 매개로 역전되는 장면을 통해 통쾌한 마무미를 선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액자로 끼어든 세 이야기 또한 전형적인 옛이야기의 구조를 갖춘 단정한 이야기이다. 선한 주인공이 등장하고, 그에 맞서는 악인들이 설정되며, 이들 둘 사이에 구렁이와 도깨비와 잉어라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나타난다. 전형적인 권선징악의 이야기 구조 속에 묵은 이야기들이 새로운 외형을 띠고 몸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 전통 살려낸 옛이야기의 가치

물론 이 창작 옛이야기에 허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주인공 땅쇠의 인물 형상이 선명하지 못하며, 또 다른 인물인 토도령의 변모도 계기를 얻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변모한다. 액자로 끼어든 세 편의 이야기 또한 중층적인 상징으로 상승하지 못한 채, 이야기의 나열로 멈추고 만 것도 허물이라면 허물이다. 더욱이 서술의 방식들이 지나치게 매끄러운 나머지, 땅쇠의 언어를 실감 있게 형상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한

계일 것이다.  
 그럼에도 다시 살려낸 옛이야기의 전통은 소중한 것이며, 또 값진 것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 창작 옛이야기는 좋은 이야기가 좋은 인격을 빚어낸다는 당연한 진실을, 직접 빚어낸 이야기를 통해 더할 나위 없이 잘 입증해 주고 있다. '이야기를 좋아하면 가난하게 산다'는 옛말처럼 옛이야기 속에 그려진 인물의 삶을 현실적인 삶으로 연결시켜 갈 때, 비도덕적인 사회 속에서 도덕적인 인간에게 주어지는 댓가는 가난인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그 가난을 기꺼이 받아 안는 선한 이들이 지꾸만 많아졌으면 좋겠다. **추천**

김상욱님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졸업하고 현재 춘천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와 독서문화시민연대 대표로 있다. 지은 책으로 《시의 길을 여는 새벽별 하나》 《숲에서 어린이에게 길을 묻다》 《어린이문학의 재발견》 등이 있다.